

광양, 400KW 태양광발전소 건설

일조량 풍부하고 인프라 확충 ... 하루 1440kW에 연간 525MW 발전

전라남도 광양 진상면에 400kW급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다.

12월17일 광양시에 따르면, 1978년 광양 진상면에 수어댐을 건설하면서 댐주변 정비사업 보조금으로 151억 원을 사용하고 남은 29억원을 들여 9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착공해 12월20일 준공식을 갖고 상업발전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면은 정부 보조금 집행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적절한 것으로 총의를 모았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고압송전선로와 2차로도로 등도 개설돼 태양광발전소 입지조건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발전소는 8324m² 부지에 400kW 규모로 건설됐으며, 하루 1440kW, 연간 525MW의 발전능력을 가졌는데, 2009년 kW당 전력 매입단가 463.37원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이 2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상면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발전소를 소유하게 됐다”며 “이익금은 면 인재육성과 후생복지사업 등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17>